

딥러닝 기반 Accelerated Capture 이미징 시스템
어떤 순간에도 준비된 당신만의 TEAM



2026. 5 VOL. 580

인간의 감각이 딥러닝과 만나다

EOS R5 Mark II



寫壇

VOL. 580 www.kappa.co.kr



kappa 1955 PRO portrait 2026 5

효성카메라

신용/정직/친절

최신 카메라 교환·판매

효성 카메라는 니콘·캐논·소니 전문 판매점입니다.
스튜디오 장비의 모든 것 각종 중고 카메라 매입합니다.



hscdna.com



OFFLINE STORE

효성카메라DnA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4



CUSTOMER CENTER

TEL : 02 - 752 - 9599
FAX : 02 - 771 - 6620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7:00
주말 : 토요일, 공휴일 정상영업
일요일 : 휴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0대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싱그러운 초록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생동의 계절,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협회지 '寫壇 pro Portrait'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인부와 희망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개하는 봄의 절정처럼, 전국 각지에서 사진 예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시는 회원 여러분의 스튜디오에도 활기찬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은 우리 프로 사진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기록하고, 누군가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는 우리의 작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숭고한 예술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빛과 그림자 속에서 따뜻한 희망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사진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맞이하는 이번 5월은 우리 협회에도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기대, 그리고 협회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들을 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급변하는 시각 매체 환경, 그리고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우리 프로 사진가들의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더욱 빛나게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과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며, '대한민국 사진 명장, 명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실천 과제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가며, 여러분께 실질적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렌즈를 통해 하나의 피사체에 완벽한 초점을 맞추듯, 서로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한 방향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난관도 거뜰히 극복하고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눈부신 햇살처럼,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운영하시는 스튜디오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제40대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 올림

Contents

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
Magazine



권두언

03 이경희 회장

K P P A 소 식

- 06 협회 40대 집행부 1/4분기 이사회
- 11 사진진흥법 본회의 최종 의결 및 제정 완료
- 14 유쾌한생각 간담회
- 16 작가제도 위원회 간담회
- 18 직함에 어울리는 회원 증강에 힘쓰자
- 20 김재성 이사 강동구청장 표창 榮譽

K P P A 인 상 사 진

- 22 강민정 작가
- 24 박용호 작가
- 26 박응태 작가
- 28 이정휘 작가
- 30 방상은 작가

K P P A 지 회 소 식

- 32 서울지회 월례회 및 교육
- 34 박남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 36 스튜디오 탐방 김영우 지부장

K P P A 풍 경 사 진

- 40 김갑수 작가
- 42 윤종성 작가
- 44 이한우 작가
- 46 이희춘 작가

K P P A 농 수 산 물 소 개

- 50 신안 3대 특산물 소금·김·민어 이야기

K P P A 교 육

- 52 “寫壇” 원고 작성 가이드
- 54 Photoshop(드림블러)
- 57 사진 복원 스토리

K P P A 타 임 머 신

- 58 2026년 사단(寫壇) 복간에 부쳐

편 집 후 기

- 60 홍보위원회 편집회의



ABOUT
THE COVER

작품제목 이경희 회장



유홍근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인상사진연구회 제7대회장 역임
現 대작스튜디오 대표



寫壇

2026. 5. VOL. 580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대표번호 02-4545-600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 kppa1955 / PW 1234)
계좌번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발행인 이경희 회장
발행일 2025년 5월
창간일 1977년 9월 /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김용우 홍보위원
인쇄·디자인 (주)미디어피앤피 02-903-277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 사진 및 기타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집행부 1/4분기 이사회 온라인 ZOOM회의 동시열려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복지정책위원장

협회(이경희 회장)는 지난 4월 10일(금) 사단법인 한국프로 사진협회 2026년 1/4분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경희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는 김천식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정태민·서호경 부회장 등 회장단과 각 위원장 및 이사회가 참석하는 가운데, 협회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와 안건은 아래와 같다.

이경희 회장, 김천식 수석부회장, 정태민 부회장, 서호경 부회장, 이동기 감사, 김동한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홍상표 재무위원장, 박수열 법제위원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안규석 대외협력위원장,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남유행 사진문화위원장, 김귀홍 총무이사, 이승호 총무이사, 박용주 재무이사, 김인형



▲ 이사회 회의모습



▲ 왼쪽부터 이경희 회장, 2부 사회 신임 김동한총무위원장, 1부 사회 나영균 기획위원장



▲ 거수투표



▲ 온라인 회의진행 한장훈 홍보위원장

재무이사, 이한우 작가제도이사, 성덕현 홍보IT이사, 남영우 복지정책이사, 박수만 사진문화이사, 김재성 대외협력이사이며, 중회의 참가자는 이만식 부회장, 정태영 부회장, 이영진 교육자적위원장, 김희덕 교육자적이사. 이대원 교육자적이사, 이상열 사진진흥이사이다.

이사회 안건

- 제1호 안건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장소와 일정에 관한 건
- 제2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제3호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제4호 안건 협회 임원 임명과 인준의 건
- 제5호 안건 기타

지난 4월 10일(금) (사)한국프로사진협회 2026년 1/4분기 이사회가 협회 회관 현장과 온라인 ZOOM을 동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경희 회장 취임 후 첫 이사회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이사회가 참석하여 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동한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총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사진진흥법 추진 현황 보고와 작가제도위원회 세미나 안개가 이어졌다.

제1호 안건으로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장소와 일정이 논의되었다. 작년에 이어 모나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개최 일정은 2026년 8월 24일(월)부터 26일(수)로 확정하였다.

제2호 안건으로 2026년 제41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다. 권역별 추천을 통해 인천·강원의 홍병섭 자문과 대전·충북·충남의 육재원 고문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으며, 거수 투표와 온라인 화상 표결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육재원 고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신임위원장(이사) 인준장 수여



▲ 선거위원장 경선 투표

제3호 안건은 박수열 법제위원장의 제안 설명으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논의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다.

첫째, 회장 후보 등록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다.

둘째, 감사 후보 등록비 20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후보자가 단독 등록된 경우 총회장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정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넷째,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당선 방식을 폐지하고 동수 득표자를 상대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개정안이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선거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4호 안건으로 결위원 임원에 대한 임명 및 인준이 이루어졌다. 총무위원장에 김동한, 홍보IT위원장에 한장훈, 대외협력위원장에 안규석, 총무이사에 김재성이 각각 임명·인준되었다. 이번 임명으로 이사 수는 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5호 안건으로 사무처 여직원 채용 건이 보고되었다. 지난 3월 공개 채용 공고를 통해 접수자 8명 중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채용 조건은 평일 5시간 근무, 급여 120만 원, 4대 보험 적용이며 1~3개월의 수습 기간을 부여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과 정태민 부회장이 사진진흥법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지난 3월 26일 국회 문화



▲ 왼쪽부터 정태민 부회장 제안설명, 박수열 법제위원장 제안설명,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제안설명



▲ 회장단 회의모습

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진진흥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SI와 펄페이커 문제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담은 것이 문체부의 찬성 의견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인천지회의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교섭 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은 오는 4월 19~20일 양일간 서울 소재 온유관광호텔에서 개최되는 초대·추천 작가 세미나를 안내하며 전국 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부탁하였다.

이경희 회장은 “오늘 첫 이사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체계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고 마무리하

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준 이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이어진 기념촬영과 함께 40대 집행부의 힘찬 첫 이사회를 마쳤다.



▲ 왼쪽부터 박수열 사진문화이사 의견개진, 성덕현 홍보이사 의견개진



▲ 왼쪽부터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 제안설명, 김민형 재무이사 의견개진, 남영우 복지정책이사

사진인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사진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인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진흥법 제정의 의미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법적 기반 마련



사진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건강한 사진산업
환경 조성



사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진흥법 제정은 협회와 회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문화의 발전과 사진산업의 미래를 위해
(사)한국프로사진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의 미래,
함께 만드는 도약!



사진진흥법 본회의 최종 의결 및 제정 완료

I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및 법사위 통과

| 글 사진진흥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회원 여러분께 매우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협회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사진진흥법이 2026년 3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법률안으로 합의의결되었고, 2026년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마침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진인들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며,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박수현 의원안과 이연희 의원안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여야 합의 속에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법은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명확한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차 시행계획,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하여 사진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사진서비스업은 단순 자영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정책 안에서 보호되고 육성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진흥법 제정의 의미

사진진흥법의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사진계의 오랜 염원과 숙원이 국가 제도로 인정받았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진은 문화예술, 산업, 기록,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적 기반 없이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사진을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핵심 분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이번 법은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진의 산업적 가치와 공공적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 시행계획 수립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진 분야가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진산업의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벌칙 규정의 도입은 사진업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공 신뢰를 다루는 전문 산업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진흥법 제정은 오랜 기간 이어진 수많은 사진인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사진진흥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자리 잡아 사진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 사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I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35
------	-------

제 안 연 월 일 : 2026. 4.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9703	박수현의원 등 12인	'25. 4.10.	상정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8.21.)
				소위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3.26.)
	2212286	이연희의원 등 16인	'25. 8.21.	상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3.26.)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3.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III 감사의 글

| 글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부회장 정태민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정태민입니다.

지면을 빌려 사진진흥법 추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너그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진흥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오랜 시간 이어진 논의와 더불어,

협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은 2019년 사진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채만수, 위원 정옥기·김하영·이경희·김우형·정태민 / 이후 사진진흥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아 주신 성금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같은 해 공청회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각 지역 지회장님들로 구성된 모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오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남겨두고 있으며, 일일이 소개드릴 기회는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36대(2017~2018년), 37대(2019~2020년), 38대(2021~2022년), 39대(2023~2024년) 지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으며, 39대(2023~2024년) 부회장단, 40대(2025~2026년) 부회장단과 더불어 인천지회(지회장 김학규), 울산지회(지회장 안성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37대 육재원, 38대 정옥기, 39대 권용욱 회장님들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국의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님들 일부와, 인천사진앨범협동조합 성연권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께서도 다양한 현안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조율 역할을 맡아 주시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에서 **성철현 고문님**과 **임용재 자문님**께서는 깊이 있는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으시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나누어 주신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습차례에 걸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무적 책임을 다해 주신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님**과 **위원 김우형 자문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언급드리지 못한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도움과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 이경희 회장과 40대(2025~2026년)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특정 개인의 공로를 넘어, 협회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사진진흥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쾌한생각 협회 방문 懇談會 변화가 기회다. 협회와 새로운 동행 약속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지난 4월 3일,
사진업계에 다양한 기자재와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유쾌한생각의 김형태 대표와
진선명 이사가 한국프로사진협회를 방문하여
이경희 회장과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협회와 업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경희 회장은 진선명 이사에
국회의원 윤건영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위쪽부터 표창장 대독하는 이경희 회장, 윤건영 국회의원 표창장 전달



젊어진 협회,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

김형태 대표는 이경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협회의 생각이 한층 젊어진 것 같아 바람직하고 반갑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쾌한생각 역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공급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뜻도 전했다.

진선명 이사는 이경희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사진협회와 함께한 20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협회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쾌한생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협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진선명 이사는 거침없이 답했다. “24시간 이 모자랄 만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문화와 조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발전이 가능합니다. 변화 자체가 곧 기회입니다.” 협회가 우물 안에 갇힌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 사단지외 하계세미나 등 각종 사업에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덧붙였다.

라이브 커머스, 사진업계도 예외가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였다. 유쾌한생각은 이미 생방송 라이브를 통한 제품 소개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김형태 대표는 사진업계도 이러한 능동적인 마케팅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라이브 생중계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라이브 커머스의 세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유쾌한생각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씩 매장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넓은 매장을 배경으로 제품을 하나씩 직접 소개하는 이 라이브 방송에 협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했다. “스튜디오 운영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새로운 도전은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느끼신 후 각자의 방식으로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협회와 업계 파트너가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유쾌한생각의 참신한 시각과 이경희 회장 체제 협회의 새로운 의지가 만나,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과 상생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신제품설명하는 김형태 대표



이경희 회장 작가제도위원회 첫 간담회 초대·추천 작가 세미나, 더 풍성하게 준비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지난 4월 3일,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과 이한우 작가제도이사가 이경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19~20일 개최 예정인 초대·추천 작가 세미나 준비 현황을 비롯하여 작가제도 전반에 걸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첫 번째 주요 안건은 4월 19~20일 양일간 진행되는 초대·추천 작가 세미나였다. 임병학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초대·추천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촬영대회를 동시에 진행하여, 20일 퇴소 전 심사와 시상까지 마무리하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시상 상품으로는 카메라 거치용 짐벌 2대와 카메라 가방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경희 회장도 별도의 상품 지원 의사를 밝혀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했던 캐논 강의 대신 촬영 지도와 심사 관련 강의를 이승주 전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초대·추천 작가와 이경희 회장이 함께하는 다과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13만 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임병학 위원장은 “참가 인원이 많아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작가제도위원회가 직접 각 지회·지부의 초대·추천 작가 명단을 배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회장 취임 후 첫 행사인 만큼 뜻깊고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초대 작가 명단 정비, 작가제도 신뢰 회복의 첫걸음

간담회에서는 초대 작가 명단 정비 문제도 논의되었다. 현재 협회의 초대 작가 명단은 약 900여 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는 현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분, 회비 미납으로 장기간 공백 상태인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임병학 위원장은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4년이 지난 후 복원 시 밀린 회비를 납부해야 권한이 회복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활동하지 않는 분들의 명단은 필터링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경희 회장은 초대·추천 작가 시상 상품으로 독도 방문 참여권을 제안하였다. 협회가 매년 시행하는 독도 방문 행사 참가 기회를 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함께 높이자는 취지이다.

사진다운 사진을 찍자—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협회로

이날 간담회에서 이한우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답지 않은 사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작가지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정한 작품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놀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작품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경희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작가제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시상 방식에 대해서도 이한우 이사는 종이 상장 대신 명패 형태의 품격 있는 상패를 제작하여 수상자가 사업장에 자랑스럽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경희 회장 취임 후 작가제도위원회와 갖는 첫 공식 소통의 자리로서, 세미나 준비부터 제도 정비, 작품 품격 제고까지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작가제도위원회가 직접 각 지회·지부의 초대·추천 작가 명단을 배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



작가지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정한 작품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 왼쪽부터 이경희 회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한우 작가제도이사

직함에 어울리는 회원 증강에 힘쓰자 직을 맡으면 직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자.



| 글 이재범 협회 자문

협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늘 마음 한쪽이 무거운 것이 있다.
바로 줄어드는 회원 수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사진 환경이 달라진 탓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
회원이 줄어드는 데는 우리 임원들 스스로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옛날에는 달랐다.
전국 어느 지회, 어느 지부든 지부장이나 지회장이 바뀌면 취임하자마자 자기 지역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
그게 당연한 의무였고, 그것이 출발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안 돈다.
공문 한 장 띄워 회원 증강을 외치면서, 정작 그 회원 증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미나를 백 번 열면 무엇 하겠는가. 우리 협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

나는 직접 움직였다.
당시 나는 협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부에 스스로 총무직을 맡겠다고 나서며,
지부장과 같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비회원 업소를 찾아 나섰다.
A4 용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때 여권 사진을 구청에서 무료로 찍어준다는 발표 내용을 인쇄했다.
우리 사진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발표였다. 우리 협회는 유해준 회장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나는 부회장으로 재임 중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 뒤로 성철현 회장 재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체국에
여권 무료 인화기를 설치했고, (주)잡코리아에서는 대형 버스에 취업 사진 무료 촬영 시스템을 갖춰 전국 대학교 앞에서
무료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육재원 회장 재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인드법이라고 하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을 만들어
우리 사진 업계의 생존권을 뒤흔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프로 사진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당시 회장님들의
부름과 지시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정부와 싸웠고, 기업과 싸웠으며, 모두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렇게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던 사진들을 찾아 모아서 A4 용지에 인쇄하여 관악구 지역 내 비회원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비회원들에게 인쇄물을 보여주며
“당신은 지금도 여권 사진을 찍으며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3일에 걸쳐 하루 10집씩 직접 문을 두드렸다. 비회원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인쇄물을 내밀며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집니다. 당신이 지금 여권 사진을 찍어 먹고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협회가 그 권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심은 통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깜짝 놀라 극진히 대접하는 분도 계셨다.
그렇게 지부장 오토바이 뒤에 타고 비를 맞아가며 이틀을 다녔더니 바로 12명 이상 회원이 늘었다.
돌면 들어온다. 이것이 진리다.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다.

비회원들이 협회를 모른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
이런 역사를 전국의 비회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협회가 있어서 당신의 밥줄이 지켜졌다는 것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회원이 된다.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명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늘 이 말을 한다. 명예를 원한다면 그 명예에 따르는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
명예는 챙기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발전도 없다.
전국 16개 지회의 모든 임원이며, 직책을 맡았으면 한 달에 며칠씩 지부를 돌며 현장을 파악하고,
어디서 회원을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임원의 본분이다.

이경희 회장이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금, 우리 협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이경희 회장은 서울지회장 재임 때 오랜 집권에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지회장으로서 게을리하지 않고 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과업이다.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 독선과 많은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그렇지만 지회 운영에는 한 치도 게을리하지 않은 점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용기 있는 자만이 영광을 누린다. 이경희 회장이 용기를 내어 협회장의 길을 걸었듯,
전국의 임원 한 분 한 분도 그 용기로 자기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란다.

신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전국 16개 지회의 지회장, 지부장, 모든 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열심히 일할 오른팔과 왼팔을 만드시오, 함께 움직이십시오.
이 글이 흑 쓴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사)한국프로사진협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김재성 이사 강동구청장 표창 榮譽

'2026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8년 연속 우수기부단체 선정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강동구청장 표창 기념촬영 ▲

김재성 서울지회 강동지부장(협회이사)이 운영하는 강동효인성문화원은 지난 4월 2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우수기부자 표창 수여식'에서 강동구청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강동구가 추진한 '2026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우수기부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 그 공로를 치하하였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성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훈훈하게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들은 꽃다발을 전달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충효(忠孝)의 가치는 점점 뒤안길로 밀려나고,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적 사회풍조가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전통적 미덕이 퇴색해 가는 이시대에, 묵묵히 올바른 인성의 씨앗을 뿌리며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곳이 있다. 바로 우리 협회 강동지부장이자 협회 이사인 김재성 원장이 이끄는 강동효인성문화원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번 수상이 무려 8년 연속이라는 사실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수상은 특정 소수의 헌신이 아니라, 효인성문화원 모든 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감동이 배가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온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하나로 뭉쳤으니, 이야말로 효인성문화원이 평소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의 아름다운 결실이다.

김재성 원장은 "이번 수상은 원우 모두의 참여와 정성이 모여 이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말 한마디에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걷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다.

충(忠)과 효(孝), 그리고 올바른 인성. 이 오래된 가치들이 오늘날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는 매일의 뉴스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런 시대일수록 강동효인성문화원의 존재는 더욱 빛난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에 따뜻한 베품이 되어온 김재성 원장과 효인성문화원 모든 원우에게 한국프로사진협회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축하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pro portrait 2026. 5.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白衣母情

백의모정 - 흰 한복 속 어머니의 정

순백의 저고리와 분홍 치마로 차려입은 만삭의 어머니가 흰 여백의 공간 속에 고요히 서서, 두 손으로 태중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백합꽃을 가슴에 품고 있다. 아래로 향한 시선과 은은한 미소에는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과 경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한복의 곡선과 만삭의 둥근 배가 어우러져 생명의 풍요로움을 아름답게 형상화한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분홍 꽃신이 화면의 여백을 채우며 따뜻한 서사를 완성하고, 절제된 흰 배경은 모성(母性)의 숭고함을 더욱 순수하게 부각시킨다.



작가소개 **강민정 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정회원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現 강언니스냅 대표



달빛아기

별이 총총한 우주 속 달 표면을 배경으로, 작은 우주복 같은 니트 옷을 입은 신생아가 인형 우주인을 꼭 끌어안은 채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다. 아기의 보드라운 볼과 양증맞은 손, 그리고 고요히 감긴 눈에서 새 생명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순수한 경이로움이 물씬 풍겨난다. 광활한 우주의 장엄함과 아기의 티 없는 작은 존재감이 극적으로 대비되면서도, 우주마저 품어버릴 듯한 생명의 신비로운 기운이 화면 가득 따스하게 번져 나온다.

강민정 작가



노래하던 순간

나는 가장 빛나던 시절의 감정을 한 장면에 담고 싶었다.
마이크 앞에 선 우리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시간이었다.
이 사진은 사랑이 시작되던 순간의 떨림을 기록한 나의 기억이다.



작가소개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함께 걷는 시간

나는 특별하지 않은 하루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발견했다.
손을 잡고 걷는 이 평범한 길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사진은 결국 사랑이란 '함께 걷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다.

박용호 작가



紅花漫舞

홍화만무 - 붉은 꽃이 춤추듯 날리다

붉은 꽃잎 문양이 날리는 순백의 드레스가 바람에 나부끼며 화면 전체를 역동적으로 수놓고, 만삭의 몸으로 환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명의 기쁨과 충만함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다. 휘날리는 머리카락과 유려하게 펼쳐지는 드레스의 곡선이 한 순간의躍動(약동)을 영원으로 포착하였으며, 회화적 배경과 어우러져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몽환적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왼손으로 태중의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드레스 자락을 날리는 모습에서, 새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벅찬 사랑과 설렘이 꽃잎처럼 날린다.



작가소개 박응태 작가

PPA MASTER PHOTOGRAPHER
現 예산중앙스튜디오 대표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예산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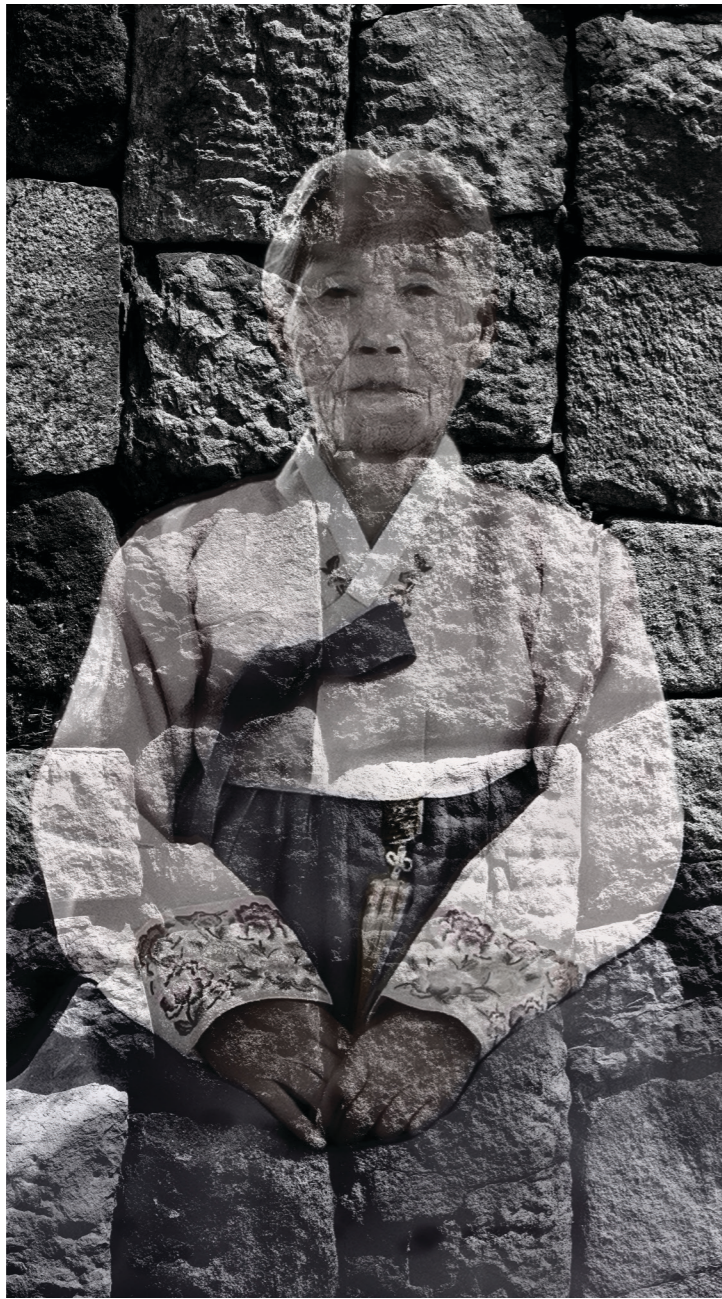


白雲貴童

백운귀동 - 흰 구름 속 귀한 아이

새하얀 깃털과 구름 같은 포근한 침구 위에 신생아가 눈을 말뚱말뚱 뜨고 누워 있으며, 작은 주먹을 쥔 채 세상을 향한 첫 호기심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늘빛 청색 배경과 순백의 포근한 소재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구름 위에 내려앉은 작은 천사를 연상시키며, 갓 태어난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성함을 고요하게 품어낸다. 보드라운 빛과 부드러운 아웃포커싱으로 완성된 화면은 새 생명이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의 설렘과 축복을 한없이 따뜻하게 전한다.

박응태 작가



不忘母恩

불망모은-잊지 못할 어머니의 은혜

돌처럼 단단하게, 한복처럼 아름답게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白中紅

백중홍-흰 세상 속의 붉음

붉은 한복 한 점이 흑백의 세상을 압도하듯,
우리의 전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난다.



작가소개 이정휘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現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우리의 한복에 담긴 어머니의 삶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당신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잠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지키고 만들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초대합니다.

이정휘 작가



She Who Wears the Night
(밤을 두른 여인)

어둠은 숨김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의 방식이다.
이 작업은
밤을 두른 채 드러나는
내면의 고요한 힘을 담고자 했다.

작가소개 **방상은작가**



문경사회복지관장 봉사상 수상
중앙대학교 산교원장 공로상수상
PPK 작품상 수상
PPA BRONZE MEDAL 2회 수상
PPA GOLD MEDAL 1회 수상
PPA MASTER
전자공학사, 사진영상학사, 상담심리학사
시각디자인전공중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방상은작가



SIGMA

ART
35mm F1.4 DG II



서울지회

서울지회 4월 月例會 및 教育

회원 증강, 교육 활성화, 정부 지원 사업 등 3가지 목표 세우

취재 한정훈 사무국장
사진 송진한 부사무국장

서울지회(지회장 신건정)는 지난 4월 3일(금요일) 18시에 협회회관에서 임원과 회원이 참석하여 월례회와 교육이 열렸다. 참석자는 신건정 지회장, 이재범 고문, 박용호 고문, 이경희 명예회장(회장), 이창직 부지회장, 정상열 감사, 김영규 감사, 한정훈 사무국장(협회 홍보위원장), 황희운 재무국장(주재기자), 송진한 부 사무국장, 백영욱 운영위원장, 김동한 운영위원(협회 총무위원장), 이성환 운영위원, 이경우 광진지부장, 김재성 강동지부장(협회 이사) 15명이 참석하였다. 신건정 제19대 서울지회장 취임 후 첫 월례회는 한정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했으며, 국기에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순으로 국민의례를 하였다. 월례회 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다.

- | | |
|-------|---------------------|
| 1호 안건 | 2026년도 서울지회 연수대회의 건 |
| 2호 안건 | 서울지회 회원 증강의 건 |
| 3호 안건 | 협회 및 지회소식, 기타 |

이재범 지회고문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지회장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박용호 지회고문은 서울지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하였다. 이경희 회장(명예 지회장)은 취임 후 협회 사무실에 사소한 일부터 하였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을 하였다. 여자 화장실 온열기 설치, 컴퓨터 점검, 빔프로젝터 점검 등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큰일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서울지회도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서울지회는 1호 안건인 2026년 서울지회 연수대회의 건에 대해 장소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2호 안건인 서울지회 회원 증강의 건에 대해서는 매달 월례회를 사진회관에서 첫째 주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서울지회 모든 회원과 타 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지회는 회원증강, 교육활성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및 서울지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결의하였다. 신건정 지회장은 처음 사무국장 역임 시 180명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절반 수준이라면서, 대부분의 각 지부는 친목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회원영입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기타 안건에서는 김동한 총무위원장이 협회 소식을 전달 하였으며, 김영규 감사는 다 같이 참여 하여 신임 신건정 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하였으며, 이창직 부지회장은 회원 증강에 대한 많은 생각과 실행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재범 고문은 직을 맡은 이상은 열심히 움직여서 회원증강에 대한 실행을 당부하였다. 서울지회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한정훈 사무국장(홍보 위원장)의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 국민의례



▲ 왼쪽부터 신건정 서울지회장 인사말, 이재범 서울지회고문, 이경희 회장, 협회소식을 전하는 김동한 총무위원장



울산지회

本會 울산광역시지회 顧問 박남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신임 會長 선출 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사진 공동체를 이끈다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박남규 회장 프로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자격위원장(이사)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외협력위원장,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인상사진초대작가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회장
前 울산매일신문사사진동호회 회장
現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회장
現 드림스튜디오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고문인 박남규 작가가 지난 4월 7일 울산 소재에서 열린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무국장에는 현삼주 작가가 함께 선출되었다.

1989년 9월 10일 창립된 울산사진씨클연합회는 올해로 창립 37년을 맞은 지역 대표 사진 단체로, 현재 13개 동아리가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사진씨클연합회는 특히 다양한 사진 동호회가 연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춘 전국 유일무이한 사진 단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이 남다르다. 가람사진동우회, 대한불교사진가회 울산지회, 물보라포토아카데미, 빛담포토포럼, 빛사랑사진동우회, 울뢰이야기, 울산포토스토리(UPS), 조리개 사진동우회, 참빛사진동호회, 한국영상동인회 울산지부, 현대빛사진연구회, 현대자동차사진동우회 등 3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취임사하는 박남규 회장

박남규 신임 회장은 협회 울산지회 고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 위에, 연합회와의 오랜 인연까지 더한 검증된 인물이다. 1999년 사무국장으로서 4년간 연합회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감사직을 수행하는 등 연합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인물로, 연합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배움과 창작으로 하나 되고 나눔으로 완성하는 사진 공동체’를 제시한 박 회장은 회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창작 활동 활성화와 사진 재능을 활용한 사회 환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울산사진씨클연합회는 아울러 합동 촬영회와 세미나, 원정 촬영, 합동 전시회, 봉사활동, 월례회 등을 통해 회원 간 화합과 창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취임사에서 박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지속적인 배움과 정보 교류를 통해 회원 역량을 높이고 씨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 되는 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전국 유일무이한 연합회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시선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선출 소식은 울산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제일일보, 경상일보 등 울산 지역 주요 신문 4곳에 동시에 보도되며 지역 사진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가족 모두는 박남규 고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울산사진씨클연합회와의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

서울지회

관악지부 김영우 지부장 스튜디오 탐방

SI로 무장한 사진관, 교육으로 하나 되는 협회

| 취재 한정훈 홍보위원장

김영우 지부장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한 '말하는대로 사진관'을 찾았다. 관악구의 골목 안에 자리한 이 작은 사진관은 7년째 관악지부를 이끌어온 김영우 지부장의 열정과 실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SI 시대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받아들이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김영우 지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관악지부, 정부사업의 주인공으로 나서다

스튜디오 탐방에 이어 관악지부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30년 넘게 이어온 관악구청 사업에 대해 그는 냉철한 시각을 내비쳤다. “전임 지부장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단체에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고생만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제 관악지부가 사업의 객(客)이 아닌 주(主)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구청 부서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한국프로사진협회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명을 앞세워 관공서와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악지부로 일을 받기보다 한국프로사진협회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이 훨씬 공신력이 있습니다. 지부에서 수익이 생기면 협회에 일정 비율을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협회와 지부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지부의 성공 모델을 서울지회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큰 그림도 함께 그리고 있다.



SI가 바꾼 사진관의 풍경

현재 말하는대로 사진관은 여권 증명사진 위주에서 복원 분야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주 10건 이상의 복원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는 비결은 다름 아닌 SI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기존에는 보정 한 장에 10만~20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SI를 도입하면서 작업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퀄리티는 오히려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손님에게 한 가지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해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그리고 선택의 폭이라는 세 가지 강점이 고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영우 지부장은 협회회원을 위해 복잡한 명령어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작업이 완성되도록 설계한 것을 필요한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SI와 포토샵을 적절히 융합하여 사진관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리는 미래 사진관의 모습이다.

서울지회 부지회장, 교육으로 새 바람을

이러한 현장 경험과 실천적 해안을 인정받아 김영우 지부장은 이번에 서울지회 부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되었다. 10여 년 만에 서울지회장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점에, 그의 선임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신건정 지회장과 발 맞추어 “교육과 SI 활용 교육, 그리고 회원 증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취임 소감 첫마디에 그의 방향이 선명하게 담겼다. 특히 그는 기존 회원의 유지만큼이나 젊은 회원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임 지회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울지회 전체의 변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막연하게 사단지를 나눠주며 회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회원 스스로 느껴야 진정한 회원 증진이 이뤄집니다.” 그가 7년 지부장 활동을 통해 몸으로 깨달은 진실이다. 처음에는 협회 활동이 손해처럼 느껴졌지만, 같은 업종 선배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매장을 방문하며 장단점을 배우는 것이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협회만의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됐다고 그는 말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 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돼야 합니다.”

SI로 무장한 현장 실력, 관공서 사업의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획력, 그리고 교육으로 회원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서울 관악구 양녕로1길 48 말하는대로사진관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이 서울지회와 협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모두스쿨
졸업사진 촬영관리 시스템



촬영부터 비대면 셀렉, 컨펌, 추가수익까지
모두스쿨 하나로 완벽하게



스마트촬영 & 자동네이밍

- QR보드 or 태블릿 촬영으로데이터에 학생 정보 매칭
- 파일명 노가다 탈출! 파일명 변환 1초 컷
- 엑셀 명렬표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자동 분류

- NAS 연동으로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한 번에 일괄 업로드
- 학교·학생별 자동 폴더 분류로 이메일/웹하드보다 압도적 편리함
-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 끝



비대면 셀렉 & 컨펌

- 학생별 계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셀렉
- 스튜디오, 학교가 실시간으로 결과 공유 및 확인가능
- 수정 요청 및 소통을 위한 메모 기능 탑재



추가수익

학부모 원본판매

- 민원·결제·CS 모두스쿨 전담! 작가님은 정산만 신경
- 판매 여부 및 금액 자율 설정 (학부모 대상 원본 판매)
- 판매 수익금의 70% 정산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학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개별 보안 계정 접속 | 데이터 암호화 | 저작권 보호용 자동 워터마크 | 시즌 완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AI 이미지 보호 및 딥페이크 오염 방지 기술

동적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사진업로드시 사이트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자동 워터마크 설정 기능

무단 유출된 파일 경로를 추적하고 캡처를 방어하여 원본 가치를 지킵니다.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작가소개 **김갑수 작가**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역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現 포토매니아 대표



노란 물결 속의 심포

한여름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이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화면 중앙에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광활한 노란 물결 속에서 고요한 존재감을 발하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동시에 상징한다. 울창한 산림과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장면은 한국의 여름이 지닌 풍요로움과 생동감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봄날의 역설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봄의 들판 위로 야자수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그 너머로 정상에 흰 눈을 인 한라산이 웅장하게 솟아 있다. 따뜻한 봄과 차가운 겨울이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이 장면은, 제주만이 선사할 수 있는 독특한 자연의 역설을 담아낸다. 청명한 하늘 아래 노란빛·초록빛·흰빛의 삼중 색채 대비가 보는 이의 시선을 화면 깊숙이 이끌며, 계절의 경계를 허무는 제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한다.



작가소개 **윤종성 작가**

2024,한화 불꽃축제 사진(대상)
 2024,영등포제 1회 사진공모전(금상)
 2024,여주생태사진 공모전(동상)
 (사)대한기독사진협회 이사장역임(고문)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동작구지부 부 지부장
 現 (사)한국환경사진협회 회장
 現 스튜디오온 대표



奉恩春梅

봉은춘매-봉은사의 봄 매화

봉은사 고찰(古刹)의 단청 처마를 배경으로 흰 백매(白梅)가 앙상한 가지 위에 탐스럽게 피어오르고, 좌측으로는 붉은 홍매(紅梅)가 화사하게 물들어 봄의 도래를 알린다. 어안 광각 구도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른 매화 가지의 역동적인 선묘(線描)가 화면 가득 펼쳐지며, 전통 사찰의 고아한 처마선과 어우러져 한국적 봄 정취를 깊이 있게 담아낸다. 채 피지 않은 꽃봉오리와 활짝 열린 꽃송이가 한 가지에 공존하는 모습에서 생명의 순환과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며, 천년 고찰의 품 안에서 해마다 변함없이 피어나는 매화의 절개와 아름다움이 숙연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梅花先開

매화선개-매화가 먼저 피어 봄을 알리다

봉은사 고목(古木)의 거친 가지 위에 순백의 백매(白梅)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분홍빛 꽃봉오리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황금빛 수술을 중심으로 눈꽃처럼 펼쳐진 꽃잎의 섬세한 결과 아직 열리지 않은 꽃봉오리의 수줍은 분홍빛이 대비를 이루며, 만개와 개화 사이의 찰나를 아름답게 포착하였다. 따뜻한 갈색 보케를 배경으로 선명하게 부각된 백매의 순결한 자태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의 절개(節概)와 기품을 고스란히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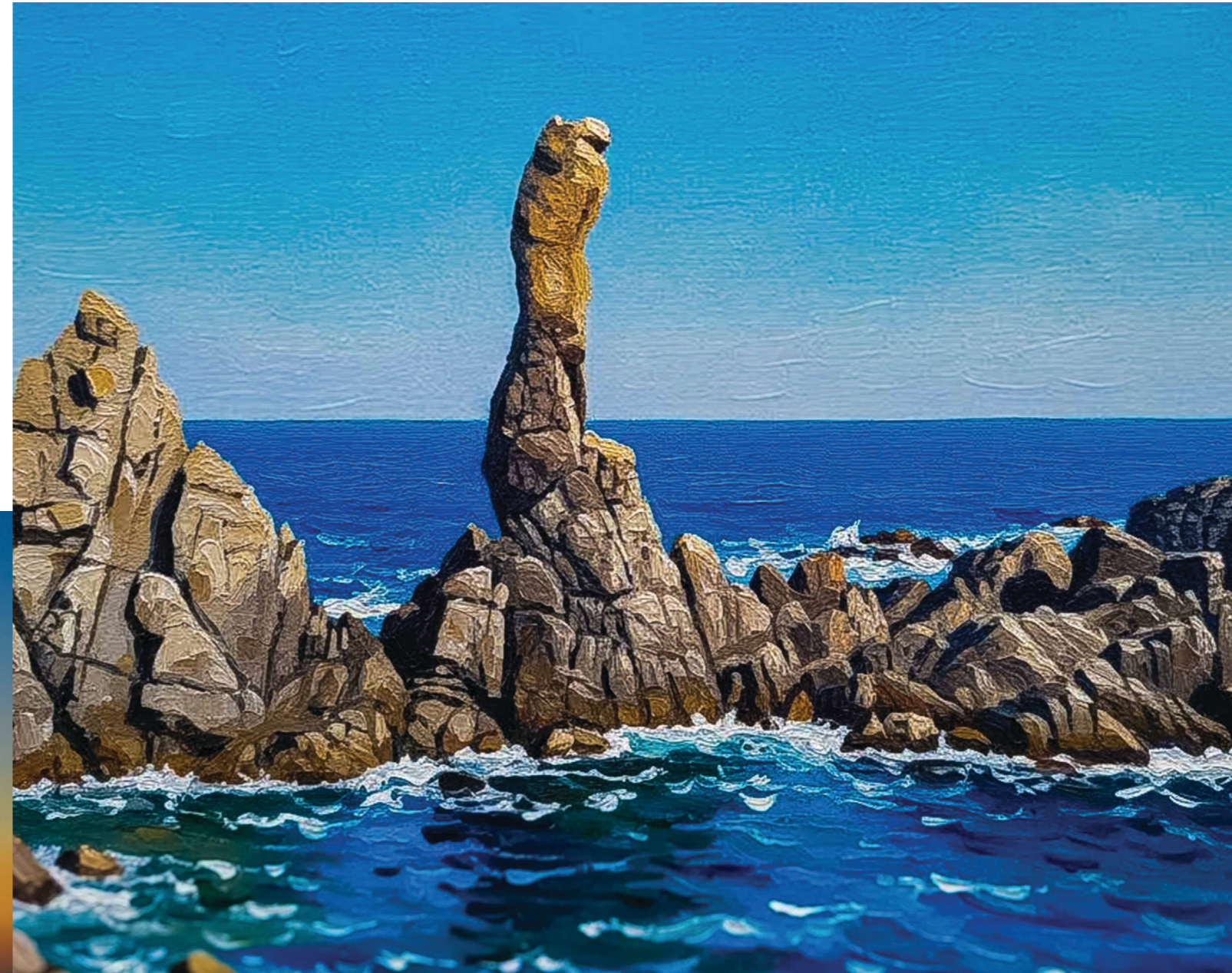


작가소개 **이한우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 위원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촬영대회 금상 외 다수입상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대외협력 위원 역임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촬영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감사 역임	2021년 4.19혁명 세계전진대회 메인작가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회장 역임	2021년~2023년 대한민국을빛낸 13인대상 메인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성남시 지부장 역임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 이사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78호	

문무대왕릉 일몰
(文武大王陵 日沒)

신라 문무대왕의 수중릉(水中陵)이 자리한 동해 바다 위로 태양이 장엄하게 지며, 하늘을 황금빛과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수평선 위에 작은 섬의 실루엣으로 홀로 남은 대왕암이 천 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며 일몰의 황금빛을 물결 위에 수놓는다. 청색에서 황금·주홍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색의 변주 속에서,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호국 의지가 이 타오르는 노을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삼척촛대바위
(유채화효과)

삼척 촛대바위가 푸른 동해를 배경으로 마치 하늘을 향해 경배하듯 홀로 우뚝 솟아, 역겹의 세월 동안 파도와 맞서온 자연의 조각품으로서 장엄한 위용을 드러낸다. 유채화 후처리 기법을 통해 화면 전체에 두터운 임파스토 질감이 살아나며,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예술 표현으로 재탄생하였다. 코발트빛 동해와 황금빛 암석의 강렬한 색채 대비가 마치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며, 거친 파도에 둘러싸인 채 곳곳이 서 있는 촛대바위의 고고한 자태에서 굳건한 인내와 불굴의 기개가 느껴진다.



작가소개 **이희춘 작가**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現 스튜디오윤 대표

네 형제

차갑고 어두운 대지를 뚫고 올라온 네 송이의 작은 꽃들이 고개를 수줍게 숙인 채 나란히 봄을 맞이하고 있다.

촬영 기법 포인트

- ▶ 어두운 배경과 흰 꽃의 극적인 명암 대비로 생명력 부각
- ▶ 고개 숙인 꽃봉오리의 자연스러운 곡선미 포착
- ▶ 얇은 심도의 아웃포커싱으로 피사체에 집중 유도



하늘 아래 꽃의 물결

먹구름이 물려드는 격동의 하늘 아래,
짙은 마젠타빛 꽃들이 지평선 끝까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대지를 온통 뒤덮고 있다.

촬영 기법 포인트

- ▶ 폭풍우 직전의 극적인 자연광을 활용한 압도적 색채 표현
- ▶ 지평선까지 펼쳐진 광각 구도로 꽃밭의 광활함 극대화
- ▶ 바람에 흔들리는 꽃의 중첩 잔상으로 역동성 표현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트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김도양 작가가 전하는 신안 3대 특산물 소금·김·민어 이야기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서울에서 오랜 시간 사진 작업을 해오던 김도양 작가는 6년 전 고향인 전남 신안으로 내려왔다. 예술적 삶을 꿈꾸며 귀향한 그는 지금 청정 자연 속에서 신안의 참맛과 가치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천일염 산지 신안의 소금, 전통 방식으로 키워낸 김,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어까지 '신안 3대 특산물'의 매력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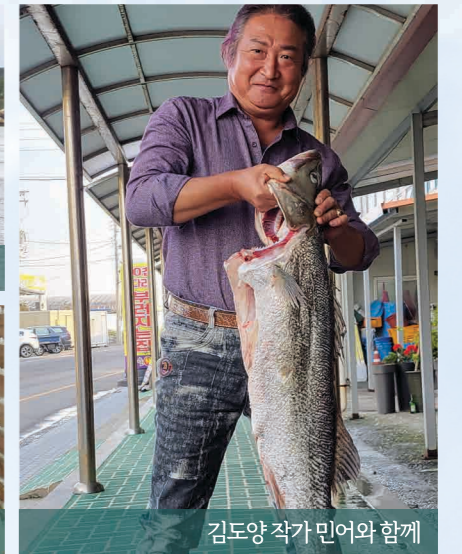
신안소금 작업모습



서울지회 둔장해변 후리그물 체험



신안소금 창고



김도양 작가 민어와 함께

언젠가는 고향에서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김도양 작가는 서울 은평구에서 사진예술원을 운영하며 활동하던 중, 늘 마음 한편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사진 작업과는 다른 삶,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려와야겠다고 결심했고, 6년 전 신안으로 귀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신안의 자연과 사람, 먹거리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천사의 섬 신안, 앞으로 더 성장할 곳 김 작가는 신안의 미래 가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였다. “예전에는 오지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각종 산업 유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안군은 14개 읍·면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천사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로도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세계가 인정한 신안 천일염

신안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김 작가는 가장 먼저 소금을 꼽았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신안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해풍, 넓은 갯벌,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들었다.

특히 오래 숙성된 소금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더욱 가치 있게 평가된다. “5년, 10년, 20년 된 소금은 감칠맛이 뛰어나고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또한 함초소금, 대파소금, 마늘소금 등 지역 재료를 활용한 응용 소금 상품도 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갯벌과 햇빛이 키운 명품 김

두 번째 특산물은 신안 김이다. “신안 김은 예전부터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으로 많이 생산합니다. 갯벌에 말뚝을 세우고 김을 키우는 방식인데, 햇빛과 바닷바람을 충분히 받아 품질이 좋습니다.” 김 작가는 좋은 김의 조건으로 갯벌, 일조량, 미네랄 세 가지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곱창김, 조미김, 김 장아찌 등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증가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안 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 건미역

세 번째, 여름철 최고 보양식, 민어(民魚)

두 번째 특산물은 신안 김이다. “신안 김은 예전부터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으로 많이 생산합니다. 갯벌에 말뚝을 세우고 김을 키우는 방식인데, 햇빛과 바닷바람을 충분히 받아 품질이 좋습니다.” 김 작가는 좋은 김의 조건으로 갯벌, 일조량, 미네랄 세 가지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곱창김, 조미김, 김 장아찌 등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증가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안 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만든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

김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협회 회원들과 좋은 먹거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신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서 우리 사진인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사람의 삶을 기록해 온 회원들이 이제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까지 함께 나누는 시대다. 김도양 작가가 전하는 신안의 맛은 단순한 특산물을 넘어,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담긴 진짜 가치라 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회 민어회 식사모습

대표 김도양
전화 010-5225-0070
상호 천사랑 농수특산물
주소 전남 신안군 암태면
진작지길203 소리샘

編輯者 註

이번 기획은 단순한 농수산물 판매를 넘어, 회원 개개인의 삶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협회 회원들 가운데에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가족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협회는 회원들이 정성과 책임으로 길러낸 우수한 농수산물을 널리 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회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한다.

농수산물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한 상품이다. 제철이라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과 함께,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품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회원의 삶과 신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소개하고,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전달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회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회원은 물론, 가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역 특산물을 보유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농수산물 유통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길 바란다.

寫壇 원고 작성 가이드

虎死留皮 人死留名,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자.

| 글 한정훈 홍보위원장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이란 말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으로, 본 협회 회보인 寫壇에 기고는 사진계 역사의 기록이며 이름을 남기는 행위이다. 71년 이전의 사진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1955년부터 이어져 온 회보(會報)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감흥이 없을지라도 먼 훗날 후배들이 보는 역사의 기록물이다. 사진은 빛으로 쓰는 글이고, 기사는 글로 찍는 사진이다. 셔터를 누르기 전 구도를 잡듯, 글을 쓰기 전에도 틀을 잡아야 한다. 아래의 가이드는 좋은 원고를 쓰기를 기대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 10가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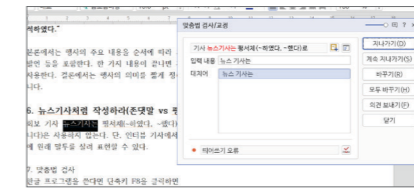


6. 뉴스 기사처럼 작성하라 (존댓말 vs 평서체)

회보 기사는 뉴스 기사는 평서체(~하였다, ~했다)로 쓴다. 일상 대화체나 존댓말(했습니다, ~입니다)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인터뷰 기사에서 당사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 ”) 안에 원래 말투를 살려 표현할 수 있다.

7. 맞춤법 검사

한글 프로그램을 쓴다면 단축키 F8을 클릭하면 “맞춤법 검사/교정” 창이 뜬다. 바꾸기를 통해 맞춤법을 수정한다.



9. 사진은 번호를 붙이고 내용을 적어라

글 못지않게 사진도 중요한데 순서를 위해 일렬 번호를 작성한다. 사진 속 인물의 소속과 직함, 이름을 설명글로 함께 보낸다. 인물 사진은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것으로 제출하고, 단체 사진과 행사 장면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사진 속 인물의 소속과 직함, 이름을 설명글로 함께 보내며, 사진의 트리밍이나 인물 보정을 간단히 하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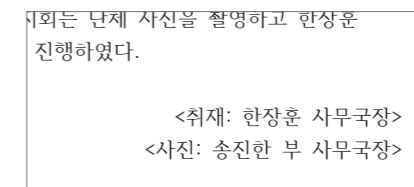


10. 원고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협회 명칭이 (사)한국프로사진협회로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직함과 성명의 오탈 자는 없는지, 행사 일시·장소·참석 인원이 정확한지,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있는지, 취재자 표기가 있는지, 사진 파일이 함께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가 모여 (사)한국프로사진협회의 역사가 된다. 완벽한 문장보다 정확한 사실이 먼저이며, 화려한 표현보다 진실된 기록이 오래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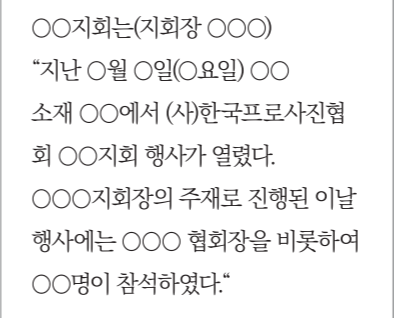
8. 마무리 — 취재자 표기

원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취재자와 사진 촬영자의 이름을 넣어준다.



5.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본문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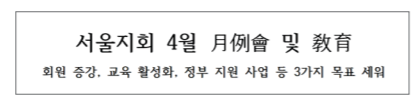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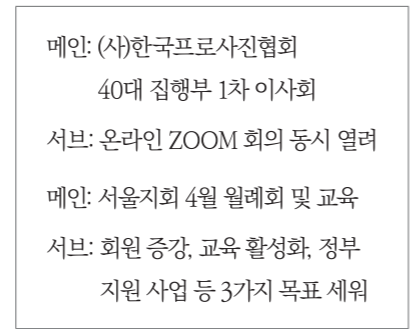
서론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간결하게 쓴다. 독자가 첫 문장만 읽어도 행사의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특히, 단체명과 단체장의 표기를 하고 일시, 장소, 행사명, 참석자 순으로 원고를 정리한다.



본론에서는 행사의 주요 내용을 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안건별 논의 결과, 수상자 정보, 주요 발언 등을 포함한다. 한 가지 내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연결어를 사용한다. 결론에서는 행사의 의미를 짧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기대나 당부의 말로 마무리한다.

4. 머릿 기사를 잡아라.

좋은 원고는 좋은 제목에서 시작한다. 제목은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두 줄로 구성한다. 메인 타이틀은 행사의 핵심을 압축한 짧고 강렬한 문장이다. 가능하면 행사의 의미나 분위기를 담아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한다. 서브 타이틀은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줄이다. (아래 예시 참조)



2. 직함 표기

재료를 모았으면 다듬어야 한다. 사진을 현상하기 전 RAW 파일을 정리하듯, 글감도 정리가 먼저이다. 직함 표기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협회 임원(부회장·감사·위원장·이사)→협회고문·자문 → 지회 임원(지회장·사무국장) → 지부 임원(지부장·사무국장)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오탈자 하나가 당사자에게 큰 실례이다. 임원 성함과 직함은 반드시 협회 임원 수첩을 참조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3. 협회 명칭

협회 명칭은 반드시 (사)한국프로사진협회로 표기한다. '사) 한국프로사진협회'나 '한국프로사진협회'처럼 괄호를 빠뜨리거나 약칭을 쓰지 않는다. 행사 장소는 '서울 소재 우마정'처럼 지역명을 앞에 붙여 표기한다.

1. 글쓰기 재료를 모아라. (녹음기, 네이버 클로바노트)

글은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 행사에 참석하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챙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명단(직함 포함), 행사 시나리오 또는 안건 자료, 주요 발언 내용(음성 녹음 권장 — 네이버 클로바노트 활용), 현장 사진(인물·행사 장면·현판 등), 수상자 정보(이름·소속·직함)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노트는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무료 앱이다. 취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 나중에 텍스트 파일로 내려받아 원고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데, 글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추천한다.





Photoshop 드림블러: 몽환적 사진 만들기

Motion Blur + Gradient Mask로 1분 만에 완성하는 소프트 블러 기법

| 글 조형준 작가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보정할 때, 때로는 현실적인 사진에서 벗어나 꿈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Motion Blur + Gradient Mask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은 레이어 하나와 마스크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드림 효과를 만들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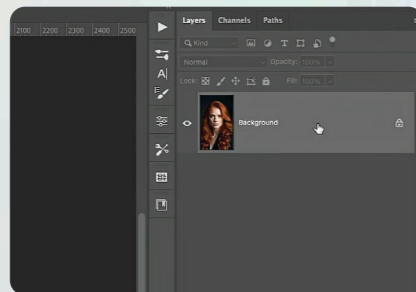


적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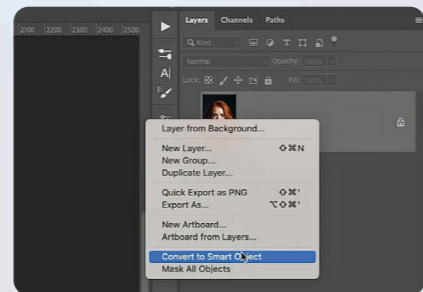


적용 후

01 준비 단계 - Smart Object로 변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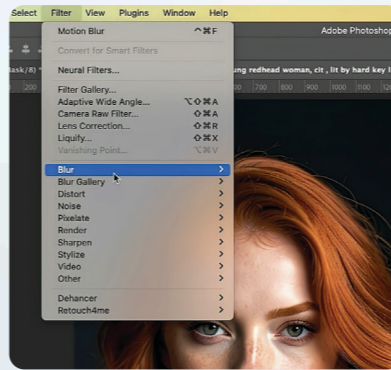
1 보정할 사진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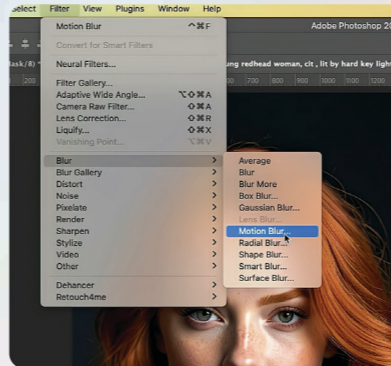
2 레이어를 우클릭 → Convert to Smart Object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를 선택합니다.
→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면 나중에 필터를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Tip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필터를 적용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이 단계를 먼저 진행하세요.

02 Motion Blur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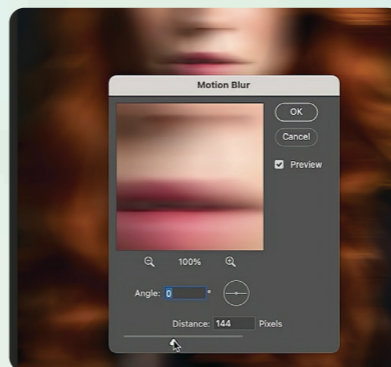


1 상단 메뉴에서 Filter → Blur → Motion Blur를 선택합니다.



2 Motion Blur 창에서 다음 값을 설정합니다.
▶ Angle (각도): 0° (가로 방향 블러)
▶ Distance (거리): 30~80px 정도 (사진에 따라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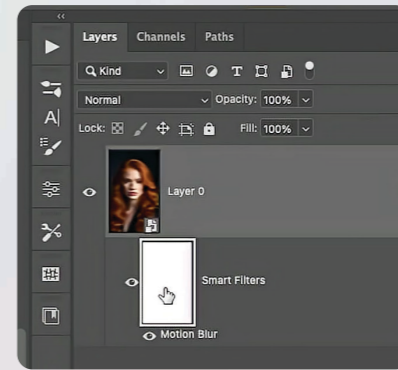
Tip 거리가 클수록 블러가 강해지고, 작을수록 은은한 효과가 납니다. 처음에는 40~50px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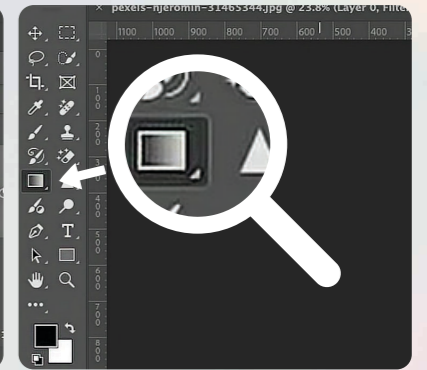
3 OK를 눌러 적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진 전체가 부드럽게 흐려지면서 꿈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03 Gradient Mask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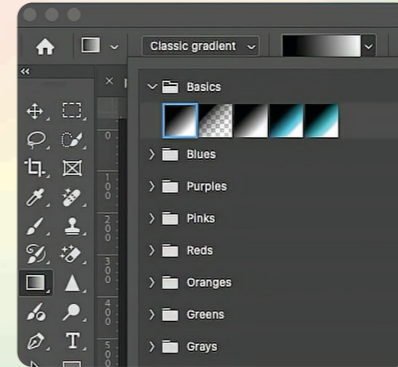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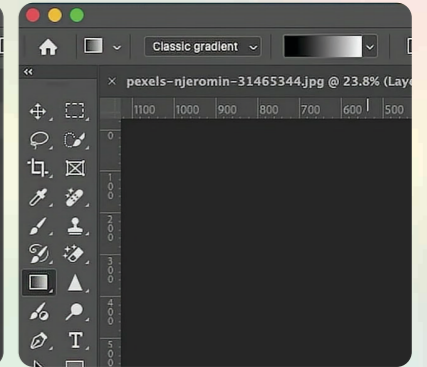
1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Alt 키를 누른 채 마스크 아이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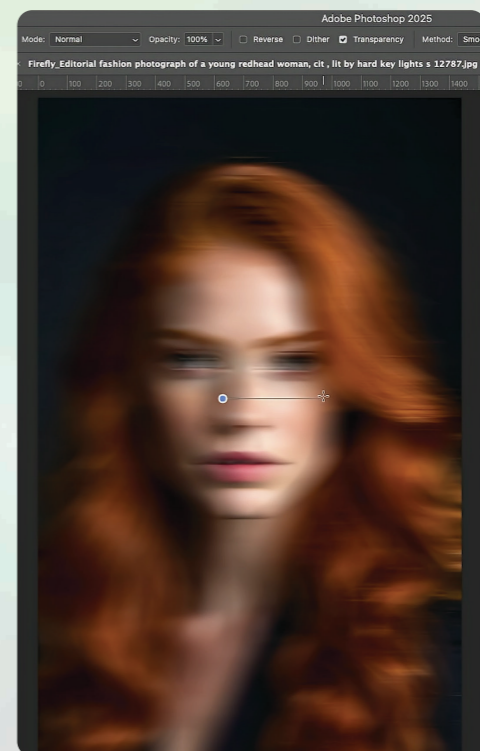
2 도구 모음에서 Gradient Tool (그라데이션 도구)를 선택합니다.



3 상단 옵션바에서 Reflected Gradient (반사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4 검정 → 흰색 기본 그라데이션을 사용합니다.



5 사진 중앙에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 중앙 부분은 블러가 강하게, 위아래 끝부분은 블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몽환적인 효과가 완성됩니다.

04 마무리 조정



- 1 블러 강도가 너무 세다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Motion Blur 값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전체 효과가 너무 강하면 레이어 Opacity(불투명도) 를 70~85% 정도로 낮춰 은은하게 조절합니다.
- 3 필요하다면 Hue/Saturation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색감 톤을 맞춰주세요.

사진 복원 스토리

| 사진병원 김충식 대표



어느덧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이 되었습니다. 전국 회원 업소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50여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진 복원을 의뢰받은 작업입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색되거나 흐릿해진 사진을 복원하는 작업에 있어, 이제는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작업 생산성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스캔된 원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색상 보정과 얼굴의 얼룩 및 손상 부분을 정리한 후 1차 AI 복원을 진행합니다. 이후 AI 결과물에서 과도하게 표현된 색감을 다시 조정하고, 인물의 얼굴 색상과 윤곽을 자연스럽게 보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 촬영된 시대적 배경과 계절감에 맞는 주변 색상과 의상 색감을 조율하여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사진가의 경험과 감각이 결합될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보조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AI 기술이 만나 더욱 경쟁력 있는 사진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AI 생성 이미지 서비스는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결과물 또한 각기 다른 특성과 품질을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선별하고, 실제 고객 반응까지 면밀히 확인하며 적용하는

조형준 강사 프로필

수상 경력

- 2006년 국내최초 사진 회화리터칭 전문가 과정
- 2025년 국내최초 사진 입체 복원 전문가 과정
- PPA 미국사진협회 7년 연속 수상 (포토그래픽 분야)
- 독일 Digital Retouch Photographic 분야 수상
- 캐나다 Digital Art Competition 국제공모전 대상
- 유럽 International Photo ART 4RD Prize 수상
- 서울경제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주관 NFT 대상
- 서울옥션.업비트 NFT 사진분야 1위 수상
- 할리우드 Weta Digital 컨셉아트 전문가부문 수상

강의 경력

- 뉴욕대 사진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 아트웍 강의
- 건국대 포토그래피 사진 아트웍 강의
- 한성대 멀티미디어학과 아트웍 강의
- 가천대 광고영상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조형준 포토샵카페

HP: 010-5359-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2026년 사단(寫壇) 제호 복원

寫壇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정신을 되찾는 일이다

| 글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랑하는 전국 회원 여러분, 반세기 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광장을 만들고자 사단(寫壇)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흩어진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사진인의 지혜를 나누며, 업계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회보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Pro Portrai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 또한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옷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정신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26년, 다시 사단(寫壇)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제호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묻는 뜻깊은 선언입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정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1977년 창간사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서로를 엮어주는 매개체를 잃고 오래도록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마음은 멀어졌고, 정보는 넘치나 지혜는 흩어졌으며, 각자의 가계는 화려해졌으나 업계의 공동체 정신은 약해졌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비싼 장비가 아니라 서로를 잇는 연결이며, 더 많은 광고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품격이며,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연대의 정신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진업의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버튼 하나로 보정을 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사람의 얼굴은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의 삶의 의미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진은 기계가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찍는 것입니다. 고객은 파일 한 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동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도구로 삼고, 사람다운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가족의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관, 인생의 전환점을 남기는 사진관, 존엄과 품위를 담아주는 인물사진관,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사진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협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 협회는 몇몇 임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다리기보다 움직이며, 비판만 하기보다 대안을 만드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寫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보는 임원 몇 사람의 글로 채워지는 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회원의 경험, 실재에서 얻은 교훈, 성공의 지혜, 후배를 위한 조언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사단. 그 정신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젊은 회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선배들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업을 지켜낸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성실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약속을 지키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한 장의 사진에 혼을 담았기에 오늘의 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젊은 사진인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본을 버리지도 마십시오. 빠름보다 깊음이 오래가고, 유행보다 신뢰가 오래가며, 재주보다 인품이 오래갑니다. 다시 사단으로 돌아온 오늘, 우리는 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寫壇은 과거를 추억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협회가 회원의 자부심이 되고, 회원이 협회의 힘이 되며, 사단이 사진계의 중심 광장이 된다면, 우리 업계의 내일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정체의를 버리고 다시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사단의 부활은 곧 우리 정신의 부활입니다. 2026년, 다시 쓰는 사단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編輯者 註

김영상 고문은 직업사진가들의 자질향상만이 업계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십수년 동안 이어오던 연수대회를 사진대학 강좌로 그 격을 높이셨고, 인상사진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인상사진 연구회도 만드셨다. 그보다 더한 업적은 회보 "사단"을 통한 회원들의 교육과 결집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다.

회보는 1955년 발행되어 사련회보(寫聯會報), 사련보(寫聯報), '광영(光影, 65년)', 'P.A.Life(69년)', '鶯鶯뉴스(71년)', '寫壇(77년)', 'Pro Portrait(2006년)' 발행되었다. 2026년 寫壇의 이름으로 복원이 된 것을 기념하여故 김영상 고문님의 뜻을 기리며 글을 작성 하였다. 아래는 김영상 고문의 약력이다.

故 金永尚 先生
1918. 6.19 ~ 1986. 4. 29



- 1932. 황해도 곡산군 먹미면 생왕리 출생 신평공립 보통학교 졸업
- 1938. 일본 북해도 나요루 중학교 졸업
- 1938. 동경 이노우에 사진관 근무
- 1950. 주한 미국공보원 영화과 근무
- 1954. 서울에서 사진관 개업
- 1965~67 대한영업사진사협회 6대 이사장 역임
- 1977~81 대한직업사진가협회 16대, 17대 이사장 역임
- 1983. 수상집 "사진과 사진" 펴냄
- 1985. 대한 직업사진가 협회 고문
- 1986.4.29 김영상 고문 별세



사단지(寫壇誌), 새 옷을 입다 홍보위원회 편집회의, 체계적 혁신 방향 논의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홍보위원회(위원장 한장훈)는 지난 4월 17일(금) 편집회의가 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경희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조규영 고문, 김동한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김용우 홍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단지의 편집 방향과 콘텐츠 혁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콘텐츠 혁신 — 타임머신에서 인상 사진까지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한장훈 홍보위원장이 제안한 'KPPA타임머신' 코너였다. 협회 창립 이래 발간된 역대 사단지를 연도별·주제별로 아카이빙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코너로, 1970~80년대 원로 고문님들의 원고를 시로 분석하여 "오늘날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특히 호응을 얻었다.

사진 콘텐츠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인상 사진(Portrait)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풍경 사진은 어느 단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 사진만큼은

우리 협회가 타 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표지 사진 역시 인상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원로 고문님들의 인물 사진을 표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진 작품에 일련번호와 제목, 작품 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 작가 소개 분량을 최대 8줄 이내로 통일하는 방안, 직함 표기 방식의 표준화 등 원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편집 체계 정비 — 배열표에서 매뉴얼까지

이날 회의에서는 편집의 구조적 체계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사단지 목차는 크게 협회 중앙 소식, 인상 사진, 지회 지부 소식, 풍경 사진, 교육 코너, KPPA 타임머신 순으로 구성하되, 중앙 소식과 지회·지부 소식을 사진 코너로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짝수·홀수 페이지 배열을 엑셀 배열표로 사전에 정리하여 레이아웃의 완성도를 높이고, 편집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한 후 인쇄에 들어가는 방식을 5월호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회명 표기 방식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헤드라인에는 서울특별시지회, 인천광역시지회 등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약칭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협회 명칭 역시 반드시 (사)한국프로사진협회로 표기하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표지 개편 — 사단지(寫壇誌)를 전면으로

이날 회의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표지 하단에 작게 표기된 '사단지(寫壇誌)' 제호를 표지 상단으로 올리고, 인물 사진을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지 레이아웃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경희 회장 취임 이전부터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이번 편집회의를 통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5월호부터 새로운 표지 디자인이 선보일 예정이다.

사단지를 수익 플랫폼으로 — 광고·맛집·농수산물 연계 사업

이번 편집회의에서는 사단지를 단순한 협회 소식지를 넘어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경희 회장은 현재 4~5개에 불과한 광고를 연간 40~50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납 광고주에게는 기사성 홍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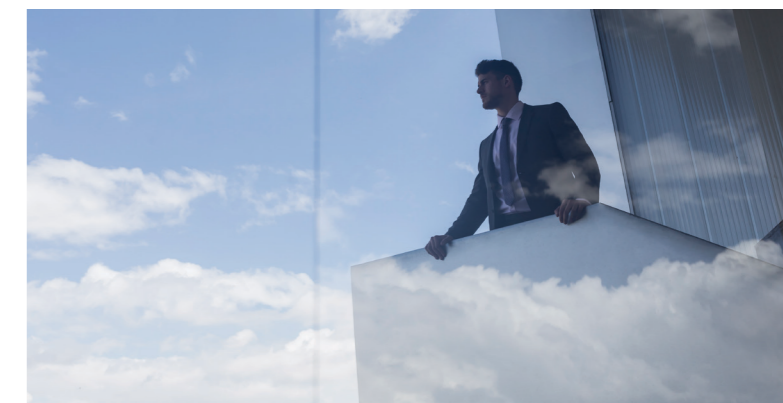
아울러 회원이 운영하는 맛집과 농수산물 판매 업소를 지역별로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고, 협회 지정업소 인증

마크를 제작하여 해당 업소에 수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실질적인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세미나 현장에서 농수산물 부스 운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단지 본문에 사진 규격 정보, AI 활용 관련 법령 안내, 협회 월간 행사 일정, 신규 회원 소식, 회원 경조사 등 실용적인 정보를 강화하여 회원들의 필독지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향도 합의하였다.

전문가 쓴소리 — 디자인 혁신 없이는 미래 없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편집 디자인 전문가의 냉철한 직언이었다. 20여 년 전 사단지와 비교해도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감하게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기성 세대가 사라진 이후 사단지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가 나왔다. 서체 하나, 색상 하나부터 전면적으로 새롭게 리디자인해야 젊은 세대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경희 회장은 5월호부터 편집 업체를 교체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경희 회장은 사단지 배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당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사단지를 발송하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회비 납부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편집 실무 회의를 넘어, 사단지의 존재 이유와 미래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혁신의 출발점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발전하는 협회"를 목표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40대 집행부의 행보에 협회 가족 모두의 응원을 보낸다.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튼튼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연간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KBIZ 중소기업중앙회